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ADHD 성향 및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

김진영*, 김진경**, 이택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를 통해 일반아동에서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의 분포를 파악하고,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7-13세 일반 아동과 부모 4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단축형 코너스 평가 척도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모두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42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29부가 회수되었다(54.5%의 회수율). 일반아동에서 ADHD 성향을 나타낸 아동의 분포비율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일반아동과 ADHD 성향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일반아동에게 단축형 코너스 평가 척도를 실시한 결과 210명 중 33명(15.7%)이 ADHD 성향을 나타냈다. 또한 ADHD 성향을 나타낸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5$).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의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ADHD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ADHD 아동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작업치료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학교작업치료 분야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I. 서 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행동적, 인지적 문제를 포함한 복잡하고, 만성화된 신경발달장애로 학령기 아동의 3%~7%를 차지하고 있다(APA, 2000). 그러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7%~12%까지 높게 추정하기도 한다(Ghanizadeh, 2007; Rapport, Kofler, Alderson, Timko,

& Dupaul, 2009). 국내의 경우 최근 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ADHD 치료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숫자가 2002년 1만 3천명에서 2005년 4만 1천명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2006).

ADHD 아동들의 발달상에 나타나는 문제로는 유아기 때 자주 울고,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산한 움직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Wender, 2005). 학령전기에

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또래와 자주 싸우며 다른 아동보다 주의 집중이 짧고 쉽게 산만해 진다. 또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울며, 순서를 기다리거나 그룹 활동에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Rapport et al., 2009). 학령기에는 손발을 자주 움직이고,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끝내지 못하며, 충동성, 자기통제력의 결여로 각종 문제를 유발해 교사로부터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오원옥과 박은숙, 2007; Dupaul & Stoner, 1994).

ADHD 아동들 중 19%~26% 정도의 아동들은 학령기에 이르러 최소한 한 유형 이상의 학습장애, 심리·사회적 부적응, 학업 성취 저조 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학령전기에 허용되었던 문제 행동들이 학령기에 더 이상 허용되지 못하고 학교라는 구조화된 환경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조수철, 2001). 청소년과 성인이 되어서도 거짓말, 절도, 학교 규칙 무시, 약물 남용 등의 반사회적 행동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Wender, 2005).

ADHD 아동들은 일차적인 행동 특성들로 인해 또래 관계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받게 되며, 잦은 부정적 피드백은 아동의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요인들은 ADHD 아동의 자기 확신 및 믿음의 부족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강삼희, 홍정미와 백양희, 2006).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Bandura(1977)는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이라 하였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사건에 대한 예측 능력 및 결과를 향한 자신의 통제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요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자기통제력 역시 아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윤지현, 2007). Schunk(1990)는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인지적 문제해결에서 산만하고 사려성이 결핍되어 낮은 학업 성취도와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ADH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ADHD 아동의

주의력 향상과 문제 행동 감소 등의 학습과 행동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기술, 학교적응 문제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 평 선 (2005)과 김 현 숙 (2006), Ross와 Ross(1982)는 단순히 ADHD 아동의 행동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되풀이 되는 실패, 비판, 좌절에서 오는 낮은 자아개념 수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개념 수준으로 높여 줄 수 있는 치료적 노력이 필요하며, 증상의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들이 갖는 심리적인 문제점에 근거하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ADHD 성향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충남 지역의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7~11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소아 정신과에서 ADHD로 평가 및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아동
- 2) 정신과적 질환이 없고 지능이 정상인 아동
- 3)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설문지는 유치원과 학교 선생님의 협조를 구한 뒤 실시하였는데,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7~8세의 아동의 경우 질문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자가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9세 이상의 아동은 직접 아동이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축형 코너스 평가 척도와 자기통제력 질문지는 부모용으로 나눠주고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연령별(7~13세)로 각 60부씩 모두 420부를 배부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설문 즉시 회수하여 420부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단축형 코너스 평가와 자기통제력은 229부만이 회수되었다(54.5%의 회수율). 분석에는 회수한 설문지 중 설문지가 찢어지거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대상자 선정 조건에 일치하며, 세 가지 설문이 모두 완성된 210부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코너스 평가 척도에서 14점

이상의 아동을 ADHD 성향의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2. 연구 도구

1) 단축형 코너스 부모용 평가 척도(Abbreviated

Conners Parent Rating Scale-Revised: ACRS)

ACRS는 ADHD 아동의 주요한 행동문제를 부모와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1990)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0-3점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를 구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각함을 나타내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2이었다.

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6)이 제작하여 한혜진(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에 대한 점수 분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은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6이다.

3) 자기통제력 검사(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주변 환경과 열

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통제력 검사를 위해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교생의 자기교시 훈련이 일반화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통제력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윤지현(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 검사는 인지적 자기통제와 행동적 자기통제에 관련된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것이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4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ADHD 성향 아동의 분포를 알아보았고, 독립 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ADHD 성향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 는 .05로 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단축형 코너스 평가 결과

일반아동에게 ACRS를 실시한 결과 총 210명 중 15.7%가 ADHD 성향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1

표 1. ADHD 성향을 나타낸 아동의 분포 비율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자수(명)	ADHD 성향 아동	
			대상자 수(명)	백분율(%)
연령	7세	30	7	23.3
	8세	30	1	3.3
	9세	30	1	3.3
	10세	30	3	10.0
	11세	30	9	30.0
	12세	30	7	23.3
	13세	30	5	16.6
전체		210	33	15.7

세가 30%로 가장 높았고, 7세, 10세, 12세는 23.3%, 13세에서는 16.6%, 나머지 연령에서는 3.3%를 나타냈다(표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0명 중 ADHD 성향을 나타난 아동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을 일반아동으로 정의하였다.

2. ADHD 성향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점수 비교

ADHD 성향을 나타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통제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일반아동이 평균 62.3 ± 7.8 점이었고, ADHD 성향 아동은 58.8 ± 8.0 점으로 일반아동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타나 ADHD 성향을 나타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자기통제력에서도 일반아동의 평균은 82.8 ± 28.2 점이었고, ADHD 성향 아동은 122.7 ± 33.7 점으로 ADHD 성향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p < .05$)(표 2).

IV.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아동에게서 ADHD 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분포를 파악하고,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일반아동들과 비교해 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를 사용한 결과 전체 210명 중 15.7%(33명)가 ADHD 성향을 보였다. 이는 570명을 대상으로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를 실시한 결과 ADHD로 의심되는 아동이 10.7%(61명)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평선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비록 수치적인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많은 수의 아동들이 ADHD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세 이상의 아동들은 ADHD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사나 부모를 위한 ADHD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ADHD 성향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ADHD 성향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rgeant, Tannock와 Logan(1993)도 자기통제력 결함은 ADHD 아동의 유일한 행동 특성으로 ADHD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Barkley(2007)는 ADHD의 주요한 3가지 증상인 산만함, 충동성 및 과잉활동이 억제능력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고하였고, 자기 통제의 실패가 계획수립이나 작업 기억의 결함 등 다른 실행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자기통제력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도 ADHD 성향의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아동이 주의력 부족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진다는 이명주(2007)의 연구와 과제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일반아동에 비해 ADHD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문명애(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높은 과제 수행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Tabassam과 Grainger(2002)는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일상생활 보다

표 2. 일반아동과 ADHD 성향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점수 비

	그룹	대상자수(명)	평균 $\pm$ 표준편차	t	p
자기효능감	일반아동	177	62.3 ± 7.8	-2.310	.022*
	ADHD 성향 아동	33	58.8 ± 8.0		
자기통제력	일반아동	177	82.8 ± 28.2	7.233	.000*
	ADHD 성향 아동	33	122.7 ± 33.7		

* $p < .05$

학습적인 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나타내므로, ADHD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임동난(1998)은 지속적인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형성시키고, 반복된 성공을 통해 높은 자기효능감이 성취되면 일시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을 관찰하는 모델링 방법과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자기 교시법 또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andura, 1977).

본 연구는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의 성별을 비교하지 않았고,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나 양육태도,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김평선(2005)은 부모의 온도, 수용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령기 아동의 ADHD 성향을 단순히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조기 발견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Greene et al., 2001). 이를 위해서는 학교나 집에서의 ADHD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며 이 연구를 계기로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 아동 210명을 대상으로 ADHD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의 분포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15.7%가 ADHD 성향을 나타냈고,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아동의 학업 수준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DHD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공동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의 작업치료사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삼희, 홍정미, 백양희. (2006).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1), 23-48.
- 김평선. (2005). ADHD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
- 김현숙. (2006). ADHD 성향이 있는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이 교사와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문명애. (2001). 자기개념과 자아효능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오경자. (199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평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 65-76.
- 오원옥, 박은숙. (200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부모의 양육 경험: 정상에 다가가기. 대한간호학회지, 37(1), 91-104.
- 윤지현. (2007). 집단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실행기능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
- 이명주. (200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상과 부적응: 자기개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2), 429-448.
- 임동난. (1998).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조수철. (2001).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차정은. (1996).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한혜진. (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kley, R. A. (2007). *Treat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Dupaul, G. J., & Stoner, G. (1994). *ADHD in the school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Ghanizadeh, A. (2007). Educating and counseling of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8(1), 23–28.
- Greene, R. W., Biederman, J., Faraone, S. V., Monuteaux, M. C., Mick, E., & DuPre, E. (2001). Social impairment in girls with ADHD: Patterns, gender comparisons, and correlat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 704–710.
- Kendall, P. D.,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Rapport, M. D., Kofler, M. J., Alderson, R. M., Timko, T. M., & Dupaul, G. J. (2009). Variability of attention processes in ADHD: Observations from the classroom.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2(6), 563–573.
- Ross, D. M., & Ross, S. A. (1982). *Hyperactivity: Current issues, research, and theor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chunk, D. H. (1990). Self-efficacy and cognitive achievement: Implica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In K. J. Torgesen (Ed.),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pp. 139–158). Austin, TX: PRO-ED.
- Sergeant, R. J., Tannock, R., & Logan, G. (1993). Inhibitory control, impulsiveness,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8), 721–740.
- Tabassam, W., & Grainger, J. (2002). Self-concept, attributional style and self-efficacy belief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with and withou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25(2), 141–151.
- Wender, P. H. (2005).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Normal Children and Their Self efficacy and Self control

Kim, Jin-Young^{*}, B.H.Sc., O.T., Kim, Jin-Kyung^{**}, Ph.D., O.T.,
Lee, Tae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n children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ddition, it aims to evaluate the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in these children on the basis of the ACRS.

Methods : From December 2007 to May 2008, we used the ACRS to survey the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in normal children aged 7-13. Attending their kindergartens and schools,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the parents of 420 such children. The questionnaire was only administered to participants who provided their informed consent whe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them. Of the 420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229 completed copies were returned (a collection rate of 54.5%).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ADHD in children in the general population, frequency was utilized using an independent t test, and we evaluated the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in normal children and those with ADHD.

Results : Using the results of the ACRS in normal children, we observed that 33 (15.7%) of the 210 subjects showed characteristics of ADHD. In addition, children with ADHD exhibited lower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p < 0.05$).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we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hildren exhibit ADH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se children exhibit lower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than normal children. The methods for the systematic treatment and follow-up of such children should be studi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is essential to have professionally trained personnel who can quickly grasp the problems faced by children with ADHD and treat them at school.

Key words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control, Self-efficacy